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 □□

정보

개요
작곡가: Sergei Rachmaninoff (1873–1943)
작품명: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작곡 시기: 1906년 10월 드레스덴에서 착수하여 1907년 봄까지 초고를 다듬었고, 1908년 1월
중순 관현악화를 마쳤다.
악장 구성: 4악장
헌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타네예프 (Sergei Ivanovich Taneyev)
초연: 1908년 1월 26일 러시아 구력, 곧 서력 2월 8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라흐마니노프가 지휘했다.
초판: A. 구타일 (A. Gutheil), 모스크바, 1908년

IMSLP: Symphony No. 2, Op. 27

Wikipedia: Symphony No. 2 (Rachmaninoff)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은 느린 서주를 둔 E단조의 제 1악장, A단조의 스케르초, A장조의 아다지오, E 장조의 피날레로 이루어진 관현악 작품이다. 1908년 초판에는 네 악장 전체와 제 1악장 제시부 반복이 적혀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악장 내부를 여러 방식으로 줄인 연주가 널리 유통되었다 . 현대 공연의 텍스트는 악장 안의 컷과 제 1악장 반복 시행 여부에 따라 갈린다.

이 작품은 흔히 긴 선율과 풍부한 현악 음향으로 기억된다. 그 선율들은 첫머리의 저현 선율과 관악 화음, 바이올린 선율이 만든 재료군의 변형과 회상 속에 놓인다. 서정적인 한 대목이 앞뒤 악장의 기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악장은 약 한 시간에 걸친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드레스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초고와 관현악 총보 사이

라흐마니노프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지휘 업무에서 물러난 뒤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에 머물렀다. 연주
일정과 사교 생활에서 한동안 거리를 둔 이 시기에 교향곡 2번을 시작했다. 소더비의 자필 총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라진 단축 총보 (short score)는 1906년 10월부터 1907년 4월까지 작성되었다 . 라흐마니노프가 1907 년 2월 11일 친구 니키타 모로조프에게 보낸 편지에는 초고를 약 한 달 전에 끝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옆으로 치워 두었다는 고백이 남아 있다.

이 편지는 첫 교향곡의 실패 뒤에 새 교향곡을 단숨에 써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익숙한 서사를 수정한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오페라 《인색한 기사》,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를 이미 발표한 작곡가였지만 , 대규모 교향 형식을 다시 다루는 일에는 여전히 신중했다. 라흐마니노프는 초고의 공개를 미룬 채 1907년 여름부터 관현악화했으며 , 현존 자료가 보여 주는 마지막 단계는 1908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1906–07년 작곡 ’은 구상의 중심 시기를 가리키고, 관현악 총보의 완성 연대는 초연 직전인 1908년까지 포괄한다.

실로티의 연주회와 작곡가의 지휘

초연은 알렉산드르 실로티가 마련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 8회 교향악 연주회에서 열렸다. 실로티는
연주회를 조직하고 리허설을 이끌었으며 같은 날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의 독주자로도 나섰다. 교향곡은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지휘했다. 현대 자료는 초연 악단을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또는 러시아 교향악 협회 오케스트라로 서로 다르게 적는다. 여러 자료에서 일치하는 정보는 마린스키 극장이라는 장소, 실로티의 연주회, 작곡가의 지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초연과 곧 이은 모스크바 연주는 모두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모스크바의 비평가 율리 엥겔은 라흐마니노프를 차이콥스키의 후계자로 평가하면서도 작곡가의 독자성, 음악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총연습에서 양 끝 악장의 길이와 전체 결속에 의문을 나타냈다는 알렉산드르 오솝스키의 회고도 남아 있다. 초기 수용에는 성공과 구조에 관한 유보가 함께 나타났다. 그해 12월 벨랴예프 유산 이사회는 이 교향곡에 글린카상 최고상과 상금 1,000루블을 수여했다.

헌정자는 라흐마니노프의 스승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타네예프다 . 초판에는 프랑스어로 ‘S. 타네예프 씨에게 ’ 라고 인쇄되어 있다. 모건 라이브러리의 온라인 목록이 관련 인물란에서 알렉산드르 타네예프를 연결하지만 , 인쇄된 헌사와 전문 자료는 모두 세르게이 타네예프를 가리킨다.

네 악장을 묶는 기억의 방식

하나의 표어보다 넓은 도입 재료군

제 1악장 서주의 첫 저현 선율은 흔히 이 교향곡의 모토라고 불린다. 다만 모토를 고정된 몇 음만으로 좁히면 뒤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저현의 짧은 선율에 이어지는 관악 화음과 바이올린의 선율까지, 서주에서 제시되는 여러 재료가 하나의 군을 이룬다고 보는 편이 알맞다. 제 1악장의 빠른 주제는 여기에서 자라며, 제 2악장의 호른과 금관, 제 3악장 중간부, 제 4악장의 회상은 이 재료군의 서로 다른 면을 되살린다.

순환 구조는 악장마다 선율의 윤곽, 어두운 화음색, 특정한 음정 관계 가운데 다른 요소를 앞세운다. 마지막 악장은 앞선 음악의 기억을 새로운 E장조의 흐름 속에 섞는다. 작품의 긴 호흡은 느린 템포와 반복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부분 사이의 재료 관계에서도 형성된다.

제 1악장: Largo – Allegro moderato

저현이 E단조의 짧은 생각을 낮게 내놓으면 관악 화음과 바이올린 선율이 그 범위를 넓힌다. 이 느린 서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머리말인 동시에 뒤에 쓰일 재료를 모아 두는 곳이다. Allegro moderato의 제 1주제는
앞서 들은 음형에 빠른 움직임을 부여한 변형이다. G장조에서 시작하는 제 2주제는 호흡이 길고 음역이 넓지만 , 발전부에서는 서주와 제 1주제의 조각들이 다시 앞에 나선다.

악보에는 제시부 반복이 있다. 반복을 시행하면 빠른 주부가 약 4분 늘어나고, 처음에는 길게 흘러가 버렸던 두 주제의 비율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반복을 생략하면서 악장 내부는 모두 연주하는 선택도 가능하므로 , ‘ 반복 생략 ’과 ‘컷 ’은 별도 항목이다. 재현부에서 제 2주제가 잠시 E장조의 빛을 보이지만, 코다는 E단조로 돌아온다. 이 E단조 종결은 뒤의 악장들이 다시 불러올 서주 재료의 성격을 유지한다.

제 2악장: Allegro molto – Meno mosso – Tempo I
두 번째 악장은 2/2박자의 빠른 순환 구조로 짜인 스케르초다 . 현악기의 지속적인 움직임 위에서 네 대의 호른이 날카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완만한 서정적 대조부와 대위적인 푸가토가 차례로 끼어든다. 빠른 부분은 돌아올 때마다 앞서 들은 대조 재료의 흔적을 받아들인다 .

여러 전문 해설은 호른 주제를 중세 성가 《 Dies irae》(진노의 날) 첫 구절의 윤곽을 비튼 선율로 분석한다. 리듬을 바꾸고 앞뒤에 음을 덧붙였으므로 두 선율은 변형 관계에 있다. 종결부에서 장식이 줄어든 금관 합창이 나타날 때 친연성이 더 잘 들린다는 분석도 있다. 이 관계는 선율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며, 작품에는 죽음의
표제나 별도의 문학적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푸가토는 중간 성부의 발음과 배치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빠른 속도는 서로 쫓아가는 선을 한 덩어리로 모으고, 성부의 분리는 대위 관계를 또렷하게 한다. 마지막에는 어두운 금관 화음이 남은 채 소리가 물러나면서 다음 아다지오가 시작될 공간을 마련한다.

제 3악장: Adagio
A장조의 아다지오는 바이올린의 넓은 도입 선율로 문을 연다. 이어 A조 클라리넷이 반주 위에서 23마디에
걸쳐 문자 그대로 되풀이되지 않는 긴 선율을 펼친다. ‘한 호흡의 독주 ’는 이 대목에 흔히 붙는 수사이며, 악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반주와 함께 이어지는 선율의 길이와 비반복적 전개다. 이 선율은 작은 구절을 이어 붙이며 범위를 넓히므로, 호흡의 위치와 반주 성부의 움직임이 전체 방향을 결정한다.

아다지오에는 클라리넷 선율 외에도 두 가지 재료가 더 큰 몫을 맡는다. 잉글리시 호른과 오보에가 짧게 말을 주고받고, 바이올린은 제 1악장 첫머리의 기억을 드러낸다. 비교적 얇은 편성에서 시작한 중간부는 긴 상승을 거쳐 바이올린 도입 선율의 큰 절정에 이른다. 그 뒤 모토와 서정 주제가 서로 얽히고, 클라리넷 선율이 돌아와 악장을 정리한다. 넓은 3부 형식 또는 노래 형식으로 설명되는 이 재현에는 중간부에서 되살아난 제 1악장의 기억이 함께 남아 있다.

제 4악장: Allegro vivace – Adagio – Tempo precedente
피날레는 E장조에서 삼연음이 달리는 빠른 주제로 시작한다. 관악의 행진곡과 D장조의 넓은 현악 선율이 대비하고, 앞선 악장의 음악은 새 주제들 사이로 들어온다. 짧은 Adagio에서는 제 3악장의 선율과 제 1악장 바이올린형 모토가 함께 회상된다. 앞선 재료는 피날레의 확대된 소나타 과정 안에서 새 주제들과 결합한다.

발전부에서는 하행 음계가 여러 악기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겹치며 음향의 밀도를 높인다. 뒤의 절정에서는 제 1악장 서주의 저음 모티프가 금관에서 크게 확대된다. 마지막에는 아다지오의 서정성이 피날레의 춤 리듬과 동시에 들리며, E단조에서 시작한 작품의 기억이 E장조의 종결 안으로 흡수된다. 밝은 결말은 이전 악장들의 재료를 새로운 조성 안에 함께 놓으면서 완성된다.

소리의 규모와 실제 편성

소요 시간

부지 앤드 호크스는 약 55분을 제시한다. 악장 내부를 모두 연주하는 현대 공연은 대체로 약 54분에서 63분 사이이며, 제 1악장 제시부 반복과 템포 선택이 차이를 크게 만든다. 예를 들어 레너드 슬래트킨과 디트로이트 심포니의 2009년 녹음은 약 54분이고,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2011년 녹음은 제 1악장 반복을 시행하여 약 61분이다. 20세기 전반의 축약 연주는 약 45분에서 50분 안팎까지 짧아질 수 있다.

한 음반의 총시간은 템포, 악장 내부의 컷, 제 1악장 반복이 함께 결정한다. 빠른 템포로 반복을 시행한 연주가 느린 템포로 반복을 생략한 연주보다 짧을 수도 있다. 트랙 정보와 판본 설명에는 이 세 항목이 서로 다른 정보로 표시된다.

슬래트킨의 2009년 녹음은 제 1악장 반복을 생략하며, 악장별로 약 18분, 9분, 14분, 13분이 걸린다. 이 시간은 한 연주의 실제 표본이며, 제 1악장 반복을 시행하는 녹음에서는 첫 악장이 약 23분까지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

편성

Woodwinds: 3 flutes (III=piccolo), 3 oboes (III=cor anglais), 2 clarinets, bass clarinet, 2 bassoons
Brass: 4 horns, 3 trumpets, 3 trombones, tuba
Percussion: timpani, 2 percussionists (glockenspiel, cymbals, bass drum, snare drum) Strings

하프와 콘트라바순은 편성에 없다. 후기 낭만주의 교향곡 가운데 악기 수는 비교적 절제되어 있지만, 호른과 잉글리시 호른, 베이스클라리넷 , 저현과 튜바가 중간 ·낮은 음역을 함께 채우면서 짙고 넓은 음향을 만든다. LSO 해설의 관현악 분석에 따르면 풍만함은 악기 수보다 이 혼합에서 생긴다. 현악의 양감 속에서도 목관과 대위선이 드러날 때, 서로 다른 음색은 하나의 긴 선율을 잇는 관계를 이룬다.

공연 텍스트가 갈라진 경로

1908년 초판과 자필 판각 원고
구타일이 모스크바에서 낸 1908년 초판은 라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이 인쇄했다. 총보의
판번호는 A. 8899 G., 관현악 파트의 판번호는 A. 8900 G.다. 현재 모건 라이브러리에 있는 약 320쪽의 자필 총보는 인쇄소가 사용한 판각 원고 (Stichvorlage)다. 검은 잉크 위에 연필과 붉은 크레용으로 삭제, 수정, 새로운 관현악 배치, 출판 지시와 판각자의 표시가 겹쳐 있다. 작곡과 출판 준비가 한 자료 안에 함께 남아 있다

.

현존 원고에서는 제 1악장 처음 네 쪽, 제 4악장 내부의 네 쪽, 마지막 두 쪽 대부분이 사라졌다. 모건 소장본은
첫 네 쪽과 마지막 두 쪽을 초판 팩시밀리로 보충하며, 제 4악장 내부는 결락 상태로 남아 있다. 이 판각 원고는 1908년 출판 준비의 수정 과정을 전하고, 후대 공연용 컷은 클리블랜드를 비롯한 별도의 연주 자료에 남아 있다.

1919년의 실연 준비와 1928년의 녹음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초대 음악감독 니콜라이 소콜로프는 1919년 라흐마니노프에게 실연에 맞게 작품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클리블랜드 공연을 앞두고 네 악장의 컷과 함께 템포, 화성, 관현악
배치도 손질했다. 1927년 여름에는 첫 녹음을 준비하며 다시 협의했다. 클리블랜드가 보관한 악보에는 인쇄된 스케르초 메트로놈 수치 126을 160으로 고친 흔적이 있고, 소콜로프는 작곡가가 아다지오 끝의 관현악법도 바꾸려 했다고 회고했다.

이 자료는 작곡가와 직접 연결된 연주 증거이자 여러 시기의 공연안이 겹친 악보다. 같은 책에 아르투르
로진스키를 비롯한 후대 지휘자들의 컷과 메모가 더해졌고, 적어도 네 사람의 필적이 겹쳐 있다. 일부 초기 표시는 지워졌다. 클리블랜드의 전 수석 사서 론 휘터커는 1928년 녹음을 들으며 악보를 대조해 소콜로프
층을 재구성했다 . 라흐마니노프의 참여는 이 재구성된 층에서 확인된다.

서로 갈라진 컷 전통

휘터커와 클린턴 니위그가 비교한 아홉 가지 관행은 지휘자마다 다른 부분을 줄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소콜로프는 네 악장 모두를 줄였고 제 1악장 제시부 반복도 생략했다. 오먼디, 미트로풀로스 , 로진스키가
사용한 필라델피아 계열은 광범위한 컷을 공유했지만 세부 위치와 범위는 지휘자마다 달랐다. 쿠세비츠키의 1944년 연주는 더 적고 다른 컷을 썼다. 쿠르트 잔데를링의 1956년 레닌그라드 녹음은 제 2·3악장을 그대로 두고 제 1·4악장을 줄였다.

각 컷은 제 1악장의 발전 과정, 아다지오의 중간 재료, 피날레의 회상 가운데 서로 다른 부분을 덜어 내며 순환 구조의 연결 방식도 바꾼다. 약 46분으로 정리한 소콜로프 안에는 작곡가의 참여라는 역사적 권위가 있고, 다른 지휘자들이 쓴 조합에는 각 공연 상황의 판단이 담겨 있다.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남긴 이 교향곡의 상업 녹음은 없으며, 서로 다른 축약안이 병존했다.

출판 정보와 판본의 현재

현재 부지 앤드 호크스가 대여 ·판매용 악보를 제공하며, 젠온은 1908년 초판을 바탕으로 한 무삭제 총보를 낸다. 니위그와 크리스토퍼 모건이 교정한 2011년 칼머스 계열 판은 초판의 실용상 오류를 바로잡고 마디 번호와 이조 파트를 보완한 공연용 자료다. 세 자료는 현행 공연을 지원하며, 모건의 자필 판각 원고를
종합하는 새 학술 비평판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뮤직 퍼블리싱은 《라흐마니노프 작품 전집》 제 3계열 8권 1부로 교향곡 2번 총보를 준비하고 있다. 편집진은 2025년에 모건 자필 원고의 디지털 사본을 확보했고, 2027–28년 출판을 예고했다. 2026년 9월 현재 전집판의 상태는 ‘출판 예정 ’이며, 현행 공연 악보와 구별된다.

연주에서 달라지는 장기 구조

반복은 길이보다 비율을 바꾼다

제 1악장 반복은 작품의 시간을 약 4분 늘리고 형식의 비율도 바꾼다. 반복을 넣으면 첫 제시가 다시 들려
단단한 구조적 기둥이 되고, 느린 서주와 긴 발전부 사이에서 제시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생략하면
서주에서 발전부로 향하는 방향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 프로그램과 음반 해설에서는 악장 내부의 컷과 제시부 반복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973년 앙드레 프레빈과 런던 심포니의 녹음은 악장 안의 음악을 복원했지만 제시부 반복은 생략했다. 페트렌코의 2011년 녹음은 반복을 시행한다. 두 음반의 제 1악장은 각각 약 19분과 23분으로 약 4분 차이가 난다. 템포 차이도 들어 있지만, 반복이 연주 시간과 체감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비교다.

노래와 전진을 함께 유지하는 문제

슬래트킨은 2009년 디트로이트 녹음에서 자신의 이전 연주보다 이행을 매끄럽게 하고 아다지오의
리타르단도를 덜 자주 썼으며, 스케르초 푸가토는 매우 빠르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선택은 서정적인 주제가 넓어지는 시간과 멀리 떨어진 회상이 이어지는 속도를 한 흐름 안에서 조율한다. 슬래트킨의 설명은 장기
호흡을 조직한 지휘 기록이며, 총보의 음표는 그대로 둔다.

페트렌코 녹음에 대한 존 퀸의 비평도 같은 난제를 다른 각도에서 드러낸다. 퀸은 첫 저현 모토의 작은 음량 때문에 윤곽이 흐려졌다고 지적하면서도 , 제 1악장 발전부의 추진력과 스케르초의 분명한 리듬, 아다지오
절정의 설계, 피날레 서정 구간 아래에 남는 긴장을 장점으로 들었다. 이 평가는 작은 음량에서 선율 윤곽을 보존하는 문제와, 노래하는 구간에서도 진행감을 유지하는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홀과 배치가 드러내는 안쪽 성부

슬래트킨은 2026년 바르샤바 공연을 돌아보며 따뜻한 홀의 울림, 풍부한 현악, 클라리넷 독주와 자신이 원한 다이내믹 균형을 언급했다. 이 지휘 기록은 잔향과 중간 음역의 관계를 작품에 직접 연결한다. 저음 목관과 호른, 저현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홀의 따뜻한 울림과 안쪽 성부의 선명도가 함께 연주 결과를 좌우한다.

리카르도 샤이의 한 공연에서는 제 1·2바이올린을 좌우로 나눈 배치가 스케르초 푸가토를 또렷하게 만들었다고 현장 비평이 기록했다. 악보의 디비지 지시와 구별되는 무대 배치의 효과다. 빠른 대위 구간과 피날레의 겹친 하행 음계에서는 성부가 응답하는 위치까지 작품의 구조를 들려주는 요소가 된다.

녹음이 전한 서로 다른 작품상

소콜로프와 클리블랜드 , 1928
1928년 5월의 니콜라이 소콜로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녹음은 이 교향곡의 첫 상업 녹음이다. 브런즈윅의 12인치 음반 여섯 장, 모두 열두 면에 담겼으며 거의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약 네 시간씩 작업했다. 이
음원에서는 1919년부터 작곡가와 협의한 약 46분의 축약안을 실제 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 작곡가의 참여와
당시 음반 매체의 조건, 소콜로프의 실용적 판단이 한 기록에 함께 남았다.

컷의 여러 계보, 1950–60년대
잔데를링과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1956년 녹음은 제 2·3악장을 보존하고 바깥 두 악장을 줄였으며, 전체의 방향은 비교적 곧다. 휘터커가 약 1946년의 방송으로 확인한 스토코프스키 연주는 모든 음표를 연주했고, 파울 클레츠키와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1968년 음반도 이른 시기의 확실한 무삭제 상업 녹음에 속한다. 이 사례들은 국적에 따른 고정된 음색 취향보다 각 지휘자가 보존한 구조에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프레빈과 런던 심포니, 1973

프레빈은 1966년 첫 녹음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컷을 썼고, 1973년 1월 킹스웨이 홀에서 다시 녹음할 때 악장 내부의 음악을 모두 복원했다. 제 1악장 반복은 생략했다. 클레츠키의 무삭제 녹음은 1968년에 이미 나와 있었으므로 , 프레빈 음반의 역사적 의의는 긴 원문이 연주회와 음반에서 설득력을 얻도록 만든 영향력에 있다.

반복과 해설까지 포함한 현대 기록

페트렌코와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2011년 녹음은 제 1악장 반복을 시행한다. 반복이 있는 큰 비율 안에서 스케르초의 발음과 아다지오의 절정, 피날레의 내적 긴장을 조직한 사례다. 안토니오 파파노와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2018년 영상은 약 62분의 공연에 43분의 해설 영화를 붙였다. 지휘자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오가며 유명 선율과 장기 구조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네 시기의 기록을 차례로 들으면 취향의 우열보다 공연 텍스트의 역사가 먼저 들린다. 소콜로프는 작곡가와 협력한 축약의 구체적 소리를 남겼고, 중반기의 음반들은 서로 다른 컷 계보를 전했다. 프레빈은 악장 내부를 복원한 긴 호흡을 대중화했으며 , 현대 녹음은 제 1악장 반복과 무대 배치, 홀의 울림까지 새로운 비교 항목으로 만들었다.

자료와 접근

악보와 원자료

IMSLP에서는 1908년 초판 총보와 관현악 파트, 네 손 피아노 편곡을 확인할 수 있다. 모건 라이브러리의 자필 총보 목록 은 결락과 판각 지시를 포함한 원고 상태를 설명한다. 부지 앤드 호크스의 현행 대여 자료, 교정 공연판, 2027–28년 예정 학술판은 각각 공연 준비, 초판 교정, 자필 기반 비평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다

.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1928년 녹음과 소장 악보 해설 은 작곡가와 소콜로프의 협업, 메트로놈 수정, 여러 필적층을 함께 보여 준다. 실제 컷 위치를 비교하려면 론 휘터커와 클린턴 니위그의 아홉 가지 컷 대조표 를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자료

Boosey & Hawkes, 작품 정보와 현행 편성
The Morgan Library & Museum, 자필 판각 원고
Sotheby's, 2014년 자필 총보 조사
Boston Symphony Orchestra, Steven Ledbetter의 작품 해설 LSO Live·Andrew Huth, 작품 구조와 관현악 해설
Rachmaninoff Performance Diary, 1908년 초연 프로그램 Moscow Conservatory, 교향곡 2번의 작곡과 초기 수용 자료 The Cleveland Orchestra, 1919–28년 소콜로프 자료와 첫 녹음 Russian Music Publishing, 라흐마니노프 작품 전집 출판 계획 Schott·Zen-On, 1908년 초판 기반 총보
Alfred·Kalmus, Nieweg Performance Edition
MusicWeb International, Previn 녹음과 무삭제 연주사의 전환 MusicWeb International, Petrenko 녹음 비교 비평 YourClassical, Leonard Slatkin의 2009년 녹음 인터뷰 Naxos, Slatkin·Detroit 녹음의 트랙과 작품 해설

- Leonard Slatkin, 2026□ 4□ □□ □□
- Seen and Heard International, Chailly □□□ □□ □□ □□
- EuroArts, Pappano□ □□□□ □□□ □□ □□